

원희룡 장관, “한-리투아니아 교통 인프라 협력 강화”

- 18일,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장관 면담… 교통 모빌리티 협력 논의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8일 방한 중인 마리우스 스쿠오디스(Marius Skuodis)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교통 정책 및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고 양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리투아니아 측 참석자 : 교통통신부 장관(Marius Skuodis), 주한리투아니아대사 (Ričardas Šlepavičius), 교통통신부 차관(Julius Skačkauskas) 등

□ 스쿠오디스 장관은 “리투아니아의 교통부문 GDP 비중이 약 12% 수준으로 유럽국가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여 교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 특히, “해상교통 개선을 항만공사, 해상풍력 확대, 핀란드와 발트3국을 연결하는 철도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부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구체적인 사업정보가 리투아니아 측으로부터 공유된다면, 철도공단,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 협회 등을 통한 우리 건설기업들이 개별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원 장관은 스쿠오디스 장관에게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6월),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9월)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9월)에 참석을 요청하며, 교통 인프라 관련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리투아니아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하였다.

- 내년부터 ITF 의장국이 되는 리투아니아와 스마트도로 등 교통분야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해서도 다양한 협력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 장관은 리투아니아와는 교통, UAM, 자율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민·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마리우스 스쿠오디스 교통통신부 장관은 한국은 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 분야에 있어서 선도국가라면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크게 환영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교통, 모빌리티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4. 18.

국토교통부 대변인